다올 선박

2026.02.08 [808호]

DAOL 다올투자증권

중국으로 간 말레이시아 MISC, 다가오는 Woodside LNG 20척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신조선가지수 5주 연속 소수점 하락, 중고선가지수 5주 연속 상승

① 신조선가지수는 VLGC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소수점 -0.19p로 하락했고 지수도 184p로 내려앉았습니다.

▶ 탱커 발주 계속, 한국도 중국도

한국은 ② 대한조선이 Advantage Tankers로부터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을 추가 수주해서, 총 4척을 건조합니다.

③ K조선도 Venergy Maritime으로부터 PC선 2척 + 옵션 2척을 수주합니다.

④ 동 선주는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에도 LR2(114k-DWT) 4척을 발주합니다.

⑤ 그리스 Evangelos Pistiolis의 Central Group은 중국 GSI에 MR 10척을 발주합니다. 주로 한국에 발주하던 패턴을 깨고, 중국에 건조하는 첫 사례입니다.

▶ 컨테이너, 홍해 재개로 힘들 구간

⑥ 머스크는 홍해 항로 재개와 신조선 인도로 컨테이너선 시장이 4~8%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5년 95억달러 EBITDA에서 2026년 가이던스를 45~70억달러 제시하며, 인력의 15%인 1,0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편 ⑦ 인도는 정부와 국영선사 SCI 등이 BCSL을 설립해서, 100여 척 컨테이너선을 매입 또는 용선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도와의 조선업 협력, 해운업 수요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 LNG선 발주 계속, 선가는 아직

⑧ HD현대삼호가 Sonangol로부터 LNG선 1 + 2척을 수주합니다. 2028년 6월 인도물이어서 신조선가는 250.5백만달러로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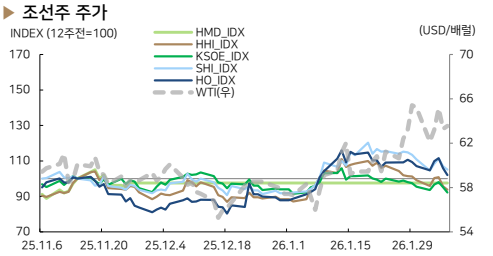
⑨ HD한국조선해양이 Tsakos와 LNG선 2 + 2척 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합니다. 2028년 4분기 인도물이어서, 신조선가는 역시 낮을 예정입니다. Taskos의 7년 만의 LNG선 발주입니다.

안타깝게도 ⑩ 말레이시아 MISC가 중국 후동중화에 LNG선 3+3척을 발주합니다. 이번 계약 외에 향후 4척을 추가 발주하는 것으로 전합니다. 후동중화는 LNG선 건조 캐파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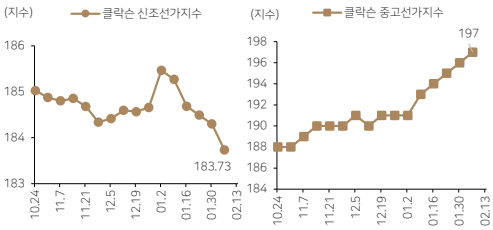
⑪ 호주 Woodside Energy가 LNG선 용선발주를 위해 해운사 7곳을 숏리스트로 추렸고, 곧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전합니다. 즉, 이미 선정된 조선사들의 선박건조 계약이 임박했습니다. 20여 척이 필요한데, 일단 확정 6~8척과 옵션 4척으로 전하며, 174k-CBM과 200k-CBM이 혼합되는 형태로 전합니다.

모니터링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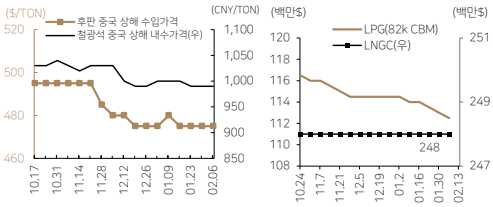
▶ 조선주 주가



▶ 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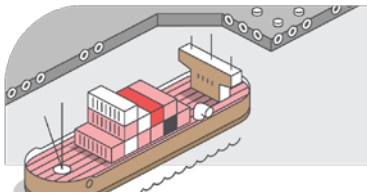
▶ 후판, 주요 선종 신조선가



주시 뉴스

✓수주, ?수주설

	수주	02월1주 주시뉴스	수주	01월5주 주시뉴스
선가 & 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183.73p로 5주 연속 소수점 하락. 중고선가지수 5주 연속 올라 197p		▲ 신조선가지수 184p로 하락-VLGC 하락. 중고선가지수 4주 연속 올라 196p-VLCC 급등 ▲ HD현대의 정기선 - 인도 모디 총리 회담: 인도 조선업 진출 및 전략적 협력
그린십		N/A		△ Wartsila, 세계 1번째 암모니아 엔진 신조 수주 성공
LNG	?	▲ Woodside Energy LNG선 신조 프로젝트: 20여척 조만간 선주 결정, 조선사와 매칭	✓	△ JP Morgan, 삼성중공업에 174k-CBM LNG선 2척 신조 발주
	✓	△ HD한국조선해양, Tsakos Group LNG선 2+2척 협의. 7년 만의 LNG선 발주	?	▲ Mozambique LNG 재개 및 17척의 LNG선 신조 부활
	✓	△ HD현대삼호, Sonangol LNG선 1+2척 수주		△ Seapeak의 스팀터빈 LNG선 올해 1번째 폐선
	✓	▼ MISC, 중국 Hudong-Zhonghua에 LNG선 최대 6척 발주	✓	▼ Shell과 Shandong Shipping 용선 바탕, 중국 Jiangnan Shipyard에 LNG선 4척 발주
가스선		△ KSS해운, BGN 및 PTT와 140.5백만달러 규모 대선 계약 체결	✓	△ MOL, 인도 국영 기업들과 VLEC 2척 및 LNG선 1척에 대한 장기 용선 계약 체결
컨테이너선		△ 인도, 1.7십억달러 투자 통한 국영 컨테이너 선사 BCSL 설립 ▽ 머스크 CEO, 홍해 항로 복귀에 따른 공급 과잉 및 폐선 필요성 강조	✓	▽ 대만 Evergreen Marine, 중형 컨테이너선 23척 중국에 발주
탱커	✓	▲ 대한조선, Advantage Tankers로부터 suezmax 추가 수주	✓	▲ Panos Laskaridis, HD현대중공업에 탱커 신조 LOI 체결
	✓	△ K조선, Venergy Maritime로부터 PC선 2척 추가 수주		△ GMS '그림자 선단' 압류 유조선 매입 및 폐선 추진
	✓	▽ Evangelos Pistiolis, 중국 GSI에 PC선 10척 발주		△ 그리스 JHI Steamship, 최근 대규모 발주에 이어 보유 중인 젊은 PC선 높은 가격에 매각
	✓	▽ 신생 선사 Venergy, 중국 NTS에 LR2 탱커 4척 추가 발주		△ Tankers International(TI) Suezmax 풀 출범
		△ MSC-Sinokor, 고사양 VLCC 매입 및 협력 가속화		
해양/디펜스	?	▽ Delfin LNG 파이프라인 폭발 사고 발생 및 조사 착수	?	▲ ENI, FLNG 시장에 대한 원가 경쟁력, 시장확대 등 Bullish한 의견 제시
		△ 북해 해상 풍력 대규모 확충 및 협력		▽ Trump 행정부, 미국 기항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세금 계획 영구 중단 검토
기타	?	▲ Vale, 30억 달러 규모 '트리플 퓨얼' 대형 벌크선 30척 발주 추진		△ 오만 Asyad Shipping는 투자 계획 60십억달러 중 60% 투자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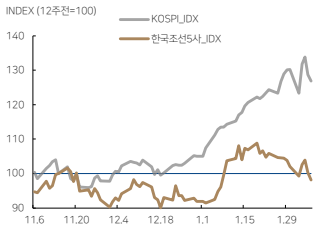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2.08 [8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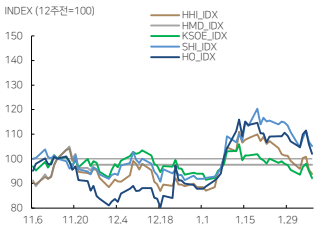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Peer Group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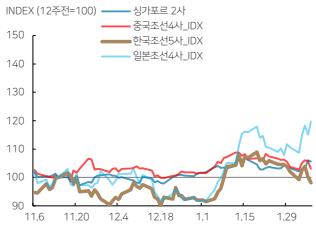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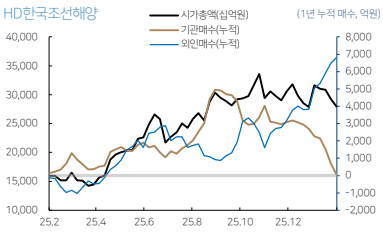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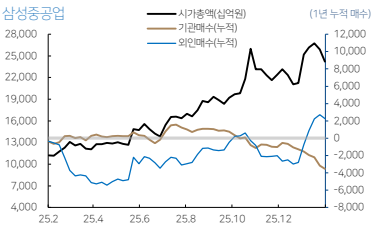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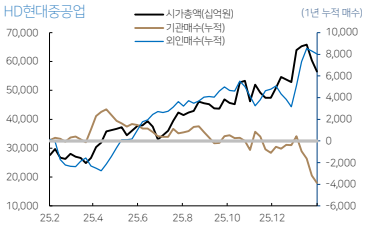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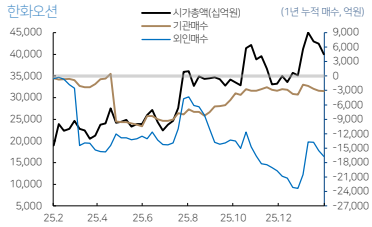


조선 수급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2.5%	13.5%	4.2%		20%	20%
	CRB INDEX		-1.3%	3.1%	2.3%		1%	14%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19,334	-3.5%	-4.0%	-16.2%		77%	386%
	HD현대중공업	39,116	-5.4%	-2.5%	-9.2%		76%	405%
	삼성중공업	16,668	-5.1%	-9.1%	-6.4%		117%	388%
	한화오션	27,657	-4.8%	-8.4%	-4.1%		113%	500%
싱가포르	KEPPEL	16,496	6.5%	11.1%	14.2%		71%	158%
중국조선	CSSC	36,793	-1.1%	-1.6%	-5.5%		1%	41%
	CSSC OMEC	4,863	1.2%	-6.8%	-8.3%		35%	37%
	YANGZIJIANG	9,783	-5.4%	-13.2%	-10.2%		5%	153%
일본조선	NAMURA SB	2,015	8.5%	18.0%	-3.2%		129%	1105%
	MITSUI ES	4,494	-0.4%	13.0%	8.5%		329%	1599%
	KAWASAKI HI	15,664	13.8%	26.1%	18.1%		105%	403%
	SUMITOMO HI	4,159	10.3%	21.9%	28.6%		72%	88%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877	-1.1%	10.7%	11.2%		45%	9%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5,937	8.5%	28.0%	40.4%		51%	27%
	SEADRILL	2,489	3.7%	17.4%	26.4%		21%	-8%
	Valaris	4,342	8.1%	21.5%	11.2%		36%	21%
	ODFJELL SE-A SHS	1,076	-3.1%	-1.8%	8.5%		14%	38%
IOC+	ExxonMobil	628,569	5.4%	25.8%	30.3%		37%	25%
	Shell	213,917	-2.3%	5.2%	0.5%		14%	22%
	BP	102,208	3.1%	14.3%	8.1%		10%	15%
	TOTALEnergies	163,193	2.3%	17.0%	16.0%		6%	5%
	Chevron	364,166	2.2%	16.5%	14.7%		19%	5%
	ENI	66,337	3.6%	13.7%	11.9%		29%	21%
	Equinor	70,299	3.4%	14.4%	9.8%		2%	-8%
ENG.	SBM	5,954	-2.7%	16.7%	31.3%		61%	107%
FEED.	TechnipFMC	23,891	6.0%	20.1%	42.8%		92%	219%
	SAIPEM	7,401	0.9%	24.3%	39.1%		36%	109%
	NOV	6,897	3.1%	12.3%	29.5%		23%	20%
	MODEC INC	6,641	1.7%	6.4%	52.3%		388%	1034%
	WORLEY PARSONS	4,517	-5.2%	-2.8%	-11.1%		-12%	15%

엔진 / 부품								
엔진	WARTSILA	23,888	-0.1%	6.7%	20.4%		80%	264%
한국엔진	한화엔진	3,081	-0.2%	22.7%	9.3%		144%	584%
	STX엔진	857	-8.0%	-5.6%	-11.7%		42%	130%
	HD현대마린엔진	1,877	-8.5%	-10.7%	-18.4%		187%	1051%
기자재	한국카본	1,233	3.3%	10.7%	-5.1%		155%	193%
	동성화인텍	580	-0.2%	6.0%	-10.9%		39%	152%
	세진중공업	694	-8.0%	-6.1%	-19.0%		110%	200%
	SK오션플랜트	725	-6.6%	-16.6%	-20.0%		38%	-18%

해운								
해운	MAERSKB DC Equity	38,117	-2.2%	-2.2%	14.5%		35%	5%
	SHIP FINANCE INTL LTD	1,323	3.3%	11.2%	22.7%		-16%	-14%
	CLARKSON PLC	1,752	-0.7%	5.6%	14.8%		-5%	5%
	EURONAV NV	3,913	-4.2%	17.9%	27.2%		-1%	0%
	FRONTLINE LTD	6,538	2.8%	24.1%	17.3%		65%	81%
	NORDIC AMERICAN TANKERS LTD	902	2.4%	13.3%	15.8%		57%	28%
	KNOT OFFSHORE PARTNERS LP	444	-2.6%	2.4%	15.2%		89%	39%
LPG	BW Offshore	904	0.5%	4.1%	27.7%		48%	30%
	DORIAN LPG LTD	1,383	9.5%	15.7%	14.9%		47%	107%
	EXMAR NV	950	0.7%	0.0%	-4.4%		26%	18%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신, 전자공시 등)

▲ Woodside Energy LNG선 신조 프로젝트: 20여척 조만간 선주 결정, 조선사와 매칭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HD한국조선해양, Tsakos Group LNG선 2+2척 협의. 7년 만의 LNG선 발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HD현대삼호, Sonango LNG선 1+2척 수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MISC, 중국 Hudong-Zhonghua에 LNG선 최대 6척 발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대한조선, Advantage Tankers로부터 suezmax 추가 수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K조선, Venergy Maritime로부터 PC선 2척 추가 수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Evangelos Pistiolis, 중국 GSI에 PC선 10척 발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신생 선사 Venergy, 중국 NTS에 LR2 탱커 4척 추가 발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Vale, 30억 달러 규모 '트리플 퓨얼' 대형 벌크선 30척 발주 추진

- 아래의 벌크 섹션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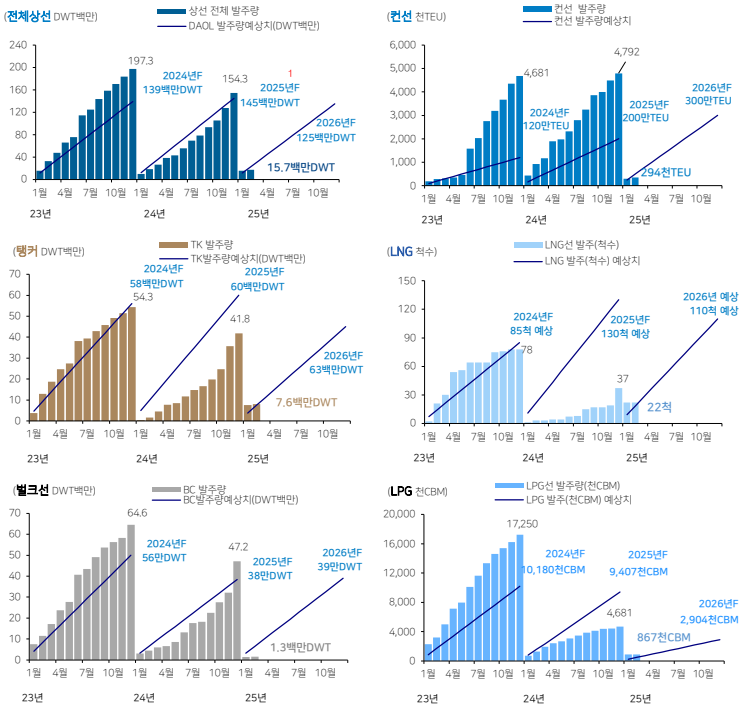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이번주 없음

N/A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6년 01월 5주								
대한민국	Hanwha Ocean	25.12.01	한국	Hanwha Shipping	TK	300k DWT	2027	1
한국	K SB (Jinhae)	25.12.30	유럽	JHI Steamship	TK	115k DWT	2028	1
중국	CMHI (Jiangsu)	25.12.08	아시아	Malaysia Int Shpg Co	FPSO		2029	1
	Taizhou Kouan SB	25.12.31	중국	Hainan Hongjinshuo	PTK	35k DWT	2027	1
	Nantong Xiangyu SOE	25.12.3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9	2
	Qidong Xiangyu	25.12.01	중국	Jiangsu Fanzhou	해양설치	90k DWT	2028	1
		25.12.3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8	5
	Ningbo Penghong SB	25.12.01	유럽	Maris Fiducia Norway	BULK	6k DWT	2028~2029	10
2026년 02월 1주: N/A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183.73p로 5주 연속 소수점 하락. 중고선가지수 5주 연속 올라 197p

4,000-TEU급이 79.5백만달러로 0.5백만달러 올랐지만, 신조선가지수는 183.73p로 0.57p 하락
중고선가지수는 5주 연속 상승. 핸디막스 탱커가 45백만달러로 1백만달러 상승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N/A

▶ LNGc

▲ Woodside Energy LNG선 신조 프로젝트: 20여척 조만간 선주 결정, 조선사와 매칭

호주 Woodside Energy는 신조 LNG선 용선을 위해 선주사 7곳을 최종 후보군(Shortlist)으로 압축
후보 선주는 일본의 MOL과 NYK, 한국의 현대글로비스, Seapeak, 그리고 그리스 선주인 Dynagas, Maran Gas Maritime, GasLog
Woodside Energy는 선정한 조선소의 슬롯(Berth)과 선주사를 매칭할 예정이며,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함
아시아 구매자향 물량과 미국발 수출 물량 운송을 위해 최대 2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함
초기 발주 물량은 확정 6~8척에, 옵션 4척이 될 것이라는 풍문
선박 사양은 174k-CBM급 LNG선과 200k-CBM급 대형 선박이 혼합된 형태
당초 계획했던 2029~2030년보다 이른 인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보유 선복이나 이미 발주된 잔고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됨
이번 입찰은 200MTPA 이상의 대규모 신규 LNG 물량 출시에 대비해 주요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신호로 해석
Woodside Energy는 2024년 Tellurian 인수를 통해 확보한 미국 Louisiana LNG 프로젝트(27.6MTPA)를 추진 중이며, 1번째 단계(16.5MTPA)의 가동 시점은 2029년임
호주 Scarborough 가스전 프로젝트(8MTPA 규모)는 2026년 하반기부터 LNG 선적을 시작할 예정
2032년까지 운영 가능한 LNG 용량을 약 40MTPA로 확대하여 현재 포트폴리오 규모를 2배로 키울 계획
☞ 한국의 슬롯이 잠겨갑니다.

▼ MISC, 중국 Hudong-Zhonghua에 LNG선 최대 6척 발주

말레이시아 선사 MISC는 중국 Hudong-Zhonghua Shipbuilding에 174k-CBM급 LNG선 3척 + 옵션 3척 계약
이번 계약 외에 향후 4척의 추가 신조 발주 가능성도 있음
발주된 선박들은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Petronas와 정기 용선 계약 체결 예정
2026년 1월 한 달간 전 세계적으로 최소 21척의 LNG선 신조 계약이 체결되며 발주세 급증
프랑스, 일본, 한국에서 주로 건조하던 MISC의 첫 중국 LNG선 발주 사례
한국 조선소의 250백만달러 대비 상당히 저렴한 약 230백만달러 수준의 중국 측 신조선가 제안 때문
노후 LNG선 교체 전략의 일환으로 1995년 건조된 스팀터빈 LNG선 2척 폐선 및 추가 3척의 폐선 입찰 진행
현재 MISC 소속 LNG선 중 2002~2009년 건조된 8척의 선박이 계선(Laid-up) 상태인 것으로 파악
Hudong-Zhonghua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60척 이상의 LNG선 잔고를 보유하며 생산 능력 확장 중

△ HD한국조선해양, Tsakos Group LNG선 2+2척 협의. 7년 만의 LNG선 발주

그리스 선사 Tsakos Group이 한국 HD한국조선해양이 174k-CBM LNG선 2척 + 옵션 2척 발주를 협의 중
2028년 4분기 인도물이며, 척당 신조선가는 약 248백만달러 수준으로 전함
이번 발주 확정 시 Tsakos의 LNG선 대수는 현재 2척에서 4~6척으로 확대
2019년 이후 첫 LNG선 신조 발주이며, 최근 미국 셰일가스 수출 증가 및 유럽의 러시아 가스 대체 수요 등 긍정적 시장 전망이 배경으로 작용
Tsakos는 주로 장기 용선 계약을 바탕으로 발주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나, 최근 Alpha Gas나 Eastern Pacific Shipping 등 타 선사들의 투기적 발주 흐름에도 주목
동사는 ExxonMobil, Shell, BP 등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들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 중
Tsakos Group은 현재 130척 이상의 선대를 보유 중이며, 2020년 이후 탱커 분야에만 약 3.3십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바 있음

△ HD현대삼호, Sonangol LNG선 1+2척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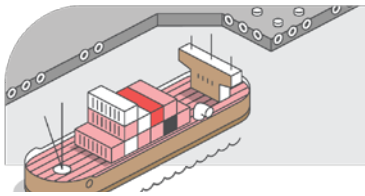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Sonangol이 HD현대삼호에 174k-CBM급 LNG선 1척+ 옵션 2척 수주
확정된 1척의 신조선가는 250.5백만달러이지만, 인도는 2028년 6월 말
이번 발주는 Angola LNG 프로젝트에 투입 중인 2011년식 노후 스팀터빈 LNG선 3척을 교체하기 위한 선대 갱신 전략의 일환
Angola LNG 프로젝트는 전체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해상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제시
2026년 1월 한 달간 전 세계적으로 최소 21척의 LNG선 신조 계약이 체결되며 연초부터 강력한 발주세 기록 중
한국 조선소의 신조선가는 척당 250백만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조선소들이 230백만달러 수준의 낮은 선가를 앞세워 수주를 확대하는 추세

▲ NextDecade CEO, 미국 LNG 수출과 내수 가스 수요 간의 갈등 가능성 일축

미국 내 LNG 수출 용량 확대가 국내 가스 수요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NextDecade CEO Matt Schatzman가 밝힘
미국 내 풍부한 가스 자원 보유로 인해 내수 시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수출 기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
현재 미국 가스 생산량의 약 20%가 수출되고 있으나, 가스 가격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임을 설명
미국 내 자원은 4~5달러/MMBtu 미만의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생산 가능한 막대한 규모라고 주장
저비용 공급을 통해 국내 가격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도 LNG 수출 용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NextDecade는 최근 Rio Grande 시설의 4번째 및 5번째 train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D)을 완료
현재 Rio Grande 6번째 train에 대한 규제 사전 승인 절차를 시작했으며, 총 48MTPA 규모의 액화 용량 개발 추진 중
2025년 기준 미국산 LNG는 유럽연합(EU) 전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략적 중요성 확대

△ 스위스 Mercuria, Commonwealth LNG와 20년 장기 LNG 공급 계약 체결

스위스 트레이더 Mercuria가 미국 루이지애나 Commonwealth LNG 프로젝트로부터 20년간 총 2,000만톤(1MTPA) 규모의 LNG를 공급받는 계약 체결
해당 물량은 174k-CBM급 표준 LNG선 기준 약 145척 분량에 해당
이번 계약은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FID)을 전제로 하며, Mercuria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 전략의 일환
Commonwealth LNG는 전체 9.5MTPA 생산 능력 중 7MTPA에 대해 Glencore, JERA, Petronas, EQT Corp 등 주요 기업들과 구속력 있는 장기 계약 체결 완료
미국 내 풍부한 자원량으로 인해 수출 확대가 내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NYK-Ocean Yield, 미국 Cheniere Energy와 초대형 LNG선 장기 용선 계약 체결

일본 NYK와 노르웨이 Ocean Yield가 공동 발주한 신조 LNG선 4척에 대해 미국 최대 LNG 생산 기업인 Cheniere Energy와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
해당 선박들은 한국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며, 200,000-cbm급 초대형 규모로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
이번 계약을 통해 Ocean Yield의 EBITDA 백로그가 약 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선박에는 차세대 X-DF2.1 iCER 이중연료 저속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증발 가스(BOG)를 연료로 활용하는 등 고효율 운항이 가능
295m 길이의 해당 선단은 NYK가 Cheniere Energy와 체결한 최초의 LNG선 장기 용선 사례로 기록
작년 12월 체결된 원계약에는 4척의 확정 물량 외에, 4척의 옵션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 발주 가능성이 존재

[01월2주] ▲ NYK와 Ocean Yield는 HD현대중공업에 LNG선 4척 발주

일본 최대 선사 NYK(Nippon Yusen Kaisha)와 노르웨이의 선박 리스 전문 기업 Ocean Yield가 2026년 한국 조선업계 1호 수주 담당
HD한국조선해양은 2026년 1월 6일, "아메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20만 CBM급 초대형 LNG선 4척 수주 공시
2029년 3월까지 인도 일정이며, 신조선가는 259.9백만달러로 공표
NYK와 Ocean Yield의 50:50 합작 투자로, 미국 Cheniere Energy와의 장기 용선 계약 발주로 전함
노르웨이의 Ocean Yield는 KKR이 소유한 선박 리스 전문사로, 인프라 성격이 강하고 장기 계약이 확보된 LNG 자산 투자를 확대
Cheniere Energy는 2026년 연간 생산량 51~53MTPA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174k-CBM급보다 큰 200k-CBM급 선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짐
이번 계약에는 추가 4척에 대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총 8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신조선에는 고효율 축발전기(Shaft Generator)와 LNG 재액화 시스템 등 최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어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한편 HD한국조선해양 2026년 수주 목표액을 전년 대비 약 +29% 상향된 233.1억 달러로 설정하며 자신감 보임
전문가들은 올해 컨테이너선이나 탱커 발주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따른 LNG선 수요와 노후선 교체 주기가 겹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QatarEnergy, 일본 Jera와 27년 장기 LNG 공급 계약 체결

QatarEnergy가 일본 Jera와 연간 최대 3MTPA 규모의 LNG를 공급하는 27년 장기 판매후매입계약(SPA) 체결
해당 계약에 따른 LNG 인도는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
일본 경제산업성(METI) 및 Jera와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일본에 추가 LNG를 공급하는 비상 공급 협약(MoU) 병행 체결
QatarEnergy는 현재 77MTPA 수준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를 이달 말까지 160MTPA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아시아 및 유럽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장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 가속화
이번 계약은 도하에서 열린 LNG 2026 컨퍼런스 기간 중 체결되었으며, 구체적인 금액 조건은 비공개임

△ QatarEnergy는 Petronas와 20년 장기 LNG 공급 계약 체결

말레이시아 국영 기업 Petronas의 자회사 PLL이 QatarEnergy와 연간 최대 2MTPA 규모의 LNG를 공급받는 20년 체결
양사 간 체결된 1번째 장기 LNG 공급 계약으로,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정적인 LNG 공급원 확보가 목적
QatarEnergy는 현재 77MTPA 수준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를 이달 말까지 160MTPA로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및 유럽 고객사와 장기 계약 체결을 가속화 중
이번 계약은 도하 LNG 2026 컨퍼런스 기간 중 체결. 일본 Jera와의 27년 장기 계약에 이은 주요 성과
QatarEnergy는 현재 노스필드 확장(NFE, NF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번 계약들이 카타르의 시장 지배력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Petronas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국 및 캐나다 생산 물량 외에 공급 노드를 다변화하여 글로벌 수요 성장에 대응할 계획

▼ 중국 CSSC, 카타르 도하 사무소 개소 및 현지 협력 강화

중국 최대 조선 그룹인 CSSC가 카타르 도하에 1번째 대표 사무소를 개소
자회사 Hudong-Zhonghua는 QatarEnergy로부터 현재까지 총 36척의 LNG선 물량을 확보한 상태
확보 물량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271k-CBM급 'QC-Max' LNG선 24척 전량이 포함
1번째 QC-Max 선박은 다음 달 건조 착수 예정이며, 2031년까지 전량 인도 예정
신설 사무소는 엔진 제조사 WinGD 등과 협업하여 설계, 건조, 인도,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현지 서비스 및 유지보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
Hudong-Zhonghua는 현재 50척 이상의 LNG선 잔고를 보유 중이며, 연간 약 30척의 건조 능력을 확보
한편, 선급 협회 Bureau Veritas(BV) 또한 도하에 '가스 기술 센터(Gas 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하여 중동 지역 가스 프로젝트 지원 강화에 나섬

△ LNG 2026 컨퍼런스' 이야기들. 2030년 600MTPA, 2050 800MTPA 글로벌 액화 CAPA 전망

주요 에너지 기업 CEO들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LNG 2026' 컨퍼런스에서 2020년대 말까지 글로벌 LNG 용량이 600MTPA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ConocoPhillips는 현재 400MTPA 수준인 시장이 2030년 600MTPA, 2050년까지 800MTPA로 성장하며 향후 20년 내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일시적인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프로젝트의 장기적 관점(20~30년)에서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
Shell은 세계 LNG 시장이 매년 3%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달 스위스 규모의 에너지 수요가 추가되고 있다고 언급
Qatar Energy는 북부 가스전(North Field) 확장을 통해 LNG 생산량을 기존 77MTPA에서 160MTPA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 이는 향후 10년 내 신규 글로벌 공급량의 약 40% 차지할 전망
TotalEnergies는 현재 40MTPA인 LNG 포트폴리오를 2030년까지 60MTPA로 확대하고, 공급원 다변화를 위해 12개국에서 LNG를 생산 중
ExxonMobil과 ConocoPhillips 등은 LNG 산업이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장기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힘
아시아 지역이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LNG 수요 성장을 견인할 첫번째 핵심 시장으로 지목됨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 이후 약 100MTPA 규모의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동남아시아(ASEAN)의 기존 가스 수출국들이 내수 소비 증가로 인해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추세
전력 생산, LNG 벙커링, 그리고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수요가 LNG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합의

▽ 오만 LNG, 수십억 달러 규모 액화 설비 확장 프로젝트 중단

국영 오만 LNG가 Qalhat 산업 단지 내 신규 train 건설을 위한 입찰 프로세스를 일시 중단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3.8MTPA 규모의 4번째 train을 추가하여 자국 LNG 생산 능력을 총 15.2MTPA로 확대하려는 계획
오만 LNG는 작년 EPC 입찰을 위해 3개의 컨소시엄을 숏리스트로 선정했으나, 최근 입찰자들에게 프로세스 중단을 통보함
숏리스트에 포함된 주요 건설사 및 컨소시엄은 1) 이탈리아 Saipem 및 한국 대우건설 컨소시엄, 2)
일본 Chiyoda 및 한국 삼성물산 컨소시엄, 3) 일본 JGC 단독이었음
프로젝트 중단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존 train들에 대한 가스 할당 최적화 및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
이번 중단으로 인해 당초 2029년으로 예정되었던 상업 가동 및 인도 시점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
반면, 인근 카타르의 QatarEnergy는 77MTPA에서 160MTPA로 생산 능력을 두 배 이상 늘리는 확장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

△ NYK, 인도네시아 선주에 2007년식 스팀터빈 LNG선 매각

일본 선사 NYK가 자사 선대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19년 선령의 노후 LNG선인 Grace Barleria(2007년 건조)를 매각
인도네시아 소재 선주에게 매각되었으며, 매각 대금은 약 35백만달러의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해당 선박은 149.7k-CBM급 멤브레인형 선박으로, 효율이 낮은 스팀터빈 추진 방식이나 해당 기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령이 낮고 크기가 큰 편임
선박의 크기를 고려할 때 역내 운송용 또는 저장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 대두
2024년에도 NYK는 자매선인 Grace Cosmos(2008년 건조)를 중국 Sino Commerce Offshore에 약 50백만달러 중반대에 매각한 바 있음
전 세계적으로 스팀터빈 LNG선의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5척의 스팀터빈 LNG선이 폐선됨
2030년까지 매년 약 20척의 스팀터빈 선박이 폐선되어 총 100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오만 Asyad Shipping 또한 지난 1월 스팀터빈 선박 4척을 약 110백만달러에 일괄 매각하며 노후 선대 정리 대열에 합류

▽ 중국 CMC 및 대만구 펀드, 18.4억달러 규모 LNG선단 지분 인수

China Merchants Capital(CMC)과 중국 대만구 펀드(China Great Bay Area Fund Management)의 174k-CBM급 LNG선 8척 보유 선사 지분을 일부 인수
해당 선단의 전체 가치는 약 18.4억달러(척당 230백만달러)로 평가. 대상 선박 8척 모두 중동 에너지 기업과 장기 용선 계약이 체결된 상태
이번 거래는 중국 주요 리스사 3곳을 통해 금융 조달이 이루어졌으며, 2026년 3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
CMC의 모그룹인 China Merchants Group은 현재 500척 이상의 선대를 운영 중이며, 한국과 중국에 총 16척의 LNG선 잔고를 보유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랜드마크적 공동 투자 사례로 평가

△ EU의 러시아 LNG 수입 금지. 4월25일까지 스팟 물량 중단, 2027년부터 장기 계약물량도 적용

EU의 러시아 LNG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Yamal LNG 프로젝트가 기존 수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척의 LNG선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겨울철 Arc7 쇄빙 LNG선으로부터 환적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저빙급(low ice-class) 또는 비쇄빙급(non-ice class) 선박이 대거 요구
추가 선박들은 EU보다 더 먼 거리의 대체 시장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데 투입될 예정
LNG 해운 시장의 공급 과잉과 중고선 거래 활성화로 인해 필요한 선복량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용선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음
러시아는 2025년 기준 EU LNG 수입량의 약 14%(약 15MTPA)를 차지하는 2번째 공급원이지만, 미국산 물량에 비해 현저히 적음
EU 회원국들은 단기 계약 물량을 2026년 4월 25일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
장기 계약 물량에 대한 수입 금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2026년 LNG 공급 성장세가 가속화되어 약 50MTPA의 신규 물량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중 40MTPA는 2024년 이후 이미 가동을 시작한 프로젝트의 증산분임
2026년 3월 첫 화물 인도가 예상되는 미국의 Golden Pass LNG와 올해 말 가동 예정인 카타의 North Field Expansion 프로젝트가 주요 신규 물량
Novatek의 Arctic LNG 2는 2025년 1.5MTPA 미만을 생산했으며, 인도된 22개 화물은 모두 중국으로 향해 중국 수입량의 약 5%를 차지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172.6k-CBM Christophe de Margerie(2017년 인도)와 172k-CBM Alexey Kosygin(2025년 인도) 등 2척의 Arc7 LNG선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2026년 Arctic LNG 2의 생산량은 약 4MTPA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박 추가 투입과 홍해-수에즈 운하 경로 이용으로 중국행 왕복 운항 기간을 2주가량 단축했기 때문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 KSS해운, BGN 및 PTT와 140.5백만달러 규모 대선 계약 체결

두 건의 장기 대선 계약 체결을 통한 총 140.5백만달러 규모 수주
1) BGN International 대상 107.3백만달러 규모의 5년 장기 계약인데,
86.5k-CBM급 VLGC 신조 2척 및 기존 선박 4척의 계약 연장 포함 추정
2) 태국 국영 PTT 대상 33.1백만달러 규모의 2년 계약 연장
91k-CBM급 Gas Ivory 선박의 기존 계약 연장 가능성
BGN 계약의 2026년 예상 매출 비중 약 29.74% 차지

▶ 컨테이너선

△ 인도, 1.7십억달러 투자 통한 국영 컨테이너 선사 BCSL 설립

인도 항만해운운수부, 국영 선사 SCI 및 Concor 등과 협력하여 Bharat Container Shipping Line(BCSL)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약 1.66십억달러(150억 루피)를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컨테이너 생태계 구축 및 해운 자급자족 목표
자국 컨테이너 무역의 해외 선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총 100척의 컨테이너선 확보 계획. 매입 또는 용선
이번 사업은 인도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3십억달러 규모의 해양 개발 기금과 연계하여 추진
현재 SCI는 단 4척의 컨테이너선만을 운영 중이며, 이번 BCSL 설립이 인도 해양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한국 선사 HMM은 인도 서부 해안에 연간 23,000천-TEU 처리가 가능한 Vadhvan 항만 개발 사업에 참여 중
해당 신규 항만은 24,000-TEU급 초대형선 수용이 가능한 수심을 확보하여 2040년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 진입을 목표로 제시

▽ 머스크(Maersk), 홍해 항로 재개 및 실적 전망에 따른 투자 의견 하향

머스크와 Hapag-Lloyd는 Gemini 협력의 일환으로 인도-중동-지중해 노선인 ME11 서비스를 2월 중순부터 수에즈 운하 경로로 복귀시키기로 결정
수에즈 운하 통과 재개는 희망봉 우회 대비 운송 기간을 10~14일 단축시키며 실질적인 선복 공급 증가 효과를 유발함
2026년 항로 정상화 시 컨테이너 수요가 약 7.5~10% 감소하며 수급 불균형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존재함

▽ 머스크 CEO, 홍해 항로 복귀에 따른 공급 과잉 및 폐선 필요성 강조

머스크(Maersk)는 홍해 항로 재개 및 신조선 인도에 따라 컨테이너 시장에 약 4%~8%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빈센트 클레르(Vincent Clerc) CEO는 누적된 유휴 선복량을 해소하기 위해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노후선 폐선(Scrapping)이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역설
2026년 EBITDA 가이던스를 2025년(95억달러)보다 낮은 45억~70억달러로 제시하며, 홍해 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 언급
수에즈 운하로의 빠르고 전면적인 복귀는 운임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며, 질서 있고 점진적인 복귀가 시장 관리에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 표명
머스크는 해군 호송하에 일부 서비스를 재개하는 '1단계'에 진입했으나,
공격적인 복귀를 택한 CMA CGM 등과 달리 신중한 Second Mover 입장을 취함
1월 수에즈 운하 통과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으며, 특히 탱커와 벌크선 부문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남
후티 반군의 공격 중단 선언과 가자지구 재건 논의 등 지정학적 긴장 완화 조짐을 예의주시하며 전면 복귀 시점을 검토 중
해군 호송 없이도 안전이 보장되는 시점이 모든 서비스의 전면 재개를 결정할 핵심 트리거가 될 것으로 분석

▽ 머스크(Maersk), 실적 악화에 따른 1,000명 규모 인력 감축 발표

머스크(Maersk)가 전 세계 6,000개의 기업 직무 중 약 15%에 해당하는 1,00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
이번 조치는 연간 1.8억달러의 비용 절감과 조직 단순화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본사 및 지역 거점 전반에 걸쳐 시행
20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이 1.9% 증가한 133억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70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1억달러 흑자) 대비 적자 전환
특히 핵심인 Ocean 부문은 물동량이 8% 증가했으나, 공급 과잉에 따른 운임 압박으로 인해 1.53억달러의 세전 손실을 기록
2026년 연간 EBITDA 가이던스는 홍해 항로의 점진적 재개 시나리오와 해운업계의 공급 과잉을 반영하여 45억~70억달러로 제시(2025년 95억달러)
2026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은 2%~4% 수준으로 예상하며, 머스크 또한 시장 성장세에 맞춰 성장할 것으로 전망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년간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

▶ 탱커

▲ 대한조선, Advantage Tankers로부터 suezmax 추가 수주

Advantage Tankers가 한국 대한조선에 157k-DWT suezmax 2척을 추가로 발주. 전자공시에서 '오세아니아 선사'로 명시
인도 시점은 2029년 1월과 5월로 예정, 척당 신조선가는 88.5백만달러
이번 발주가 확정될 경우, Advantage Tankers가 해당 야드에 발주한 suezmax 잔고는 총 4척으로 늘어남
지난해 발주한 이전 2척의 선가가 척당 85백만달러였고, 강한 탱커 수요와 운임 상승에 따라 신조선가가 상승했음
대한조선은 이번 달 전 세계에서 발주된 suezmax 11척 중 6척을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올해 대한조선의 suezmax 수주 현황은, 이번 건 전에 Nordic American Tankers (NAT) 2척 (2028년 하반기 인도), Laskaridis Shipping 2척 (2029년 2월, 4월 인도)

△ K조선, Venergy Maritime로부터 PC선 2척 추가 수주

그리스 신생 선사 Venergy Maritime이 한국 K조선과 50k-DWT급 PC선 2 + 옵션 2척에 대한 확정 신조 계약 체결
확정된 2척은 컨벤셔널 추진 방식이며, 2027년 3분기 인도 예정
Venergy Maritime은 지난해에도 K조선에 PC선 4척을 발주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발주로 해당 야드에 총 6척의 잔고 확보
해당 선사는 중국 조선소에도 114k-DWT급 LR2 탱커 2척과 1,9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발주하며 선대 확장 가속화 중
Venergy의 수장 Vyron Vasileiadis는 올해 에코 선박 확보를 위해 약 500백만달러의 자본 투입하며,
규제 당국 및 용선주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현대식 선박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장기적 투자 전략 수행

▽ Evangelos Pistiolis, 중국 GSI에 PC선 10척 발주

그리스 선주 Evangelos Pistiolis의 Central Group이 중국 Guangzhou International Shipyard(GSI)와 50k-DWT급 PC선 10척 건조 계약 체결
이번 계약은 총 500백만달러 미만 규모이며, Pistiolis가 한국 조선소 위주의 발주 패턴을 깨고 중국에서 발주한 첫 사례
발주된 선박들은 고사양(High-specification) 탱커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Central Group의 신조 발주
해당 선박들은 GSI가 최근 인수한 Guangxin 야드에서 건조되어 2028년 인도될 예정
신조선가는 대량 발주 특성상 척당 47백만달러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Clarksons 공시 가격인 49.5백만달러보다 낮은 수준
모든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 Tier III 배출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이번 수주는 중국 CSSC 그룹에 있어 탱커 시장 내 브랜드 영향력과 시장 확장 능력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

▽ 신생 선사 Venergy, 중국 NTS에 LR2 탱커 4척 추가 발주

그리스 선주 Vyron Vasileiadis가 이끄는 Venergy Maritime이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에 114k-DWT급 LR2 탱커 4척을 추가 발주. 총 6척 건조
이는 한국 K조선에서 MR2 탱커 신조 계약(확정 6척 + 옵션 2척)을 체결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추가 확장
2025년 중고 MR2 매입으로 해운업에 진출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에코 선박 확보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
현재 Venergy의 신조 프로그램에는 중국 Huangpu Wenchong에 발주한 1,900-teu급 컨테이너선 4척도 포함되어 있어 선종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Vasileiadis는 "수십 년간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단 구축"을 목표로 하며, 선대를 100% 지분 보유 형태로 유지할 계획
모그룹인 V Group은 지중해 지역 폐기물 처리 및 비상 대응 서비스 분야의 강자로, 작년 수에즈 운하 전담 선박 폐기물 관리 사업권을 획득하여 화제가 된 바 있음
이번 LR2 발주는 MR급을 넘어 핵심 탱커 함대를 확장하고 고사양 선박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단계로 분석

△ MSC-Sinokor, 고사양 VLCC 매입 및 협력 가속화

MSC와 Sinokor의 합작 세력이 319k-DWT급 VLCC인 Agneta Pallas III(2013년 건조)를 90백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
해당 선박은 에코 엔진과 스크러버를 장착한 고사양 선박으로, 2024년 매입가인 80백만달러 대비 10백만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으며 현대식 VLCC 가치의 벤치마크를 형성
Sinokor는 현재 약 130척 규모의 VLCC 선대를 구축했으며, 이 중 중고 매입 선박은 최소 30척 이상으로 추정
MSC는 Sinokor와 공동 선주 또는 리스 제공자 형태로 협력 중이며, Sinokor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선박 관리 등 백오피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MSC는 중국 Hengli Heavy Industry와 최대 10척의 VLCC 신조 발주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
Sinokor에 선박을 매각한 주요 선사로는 Frontline, Advantage Tankers, Zodiac Maritime 등이 포함됨
이번 거래는 글로벌 VLCC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Sinokor의 야심과 MSC의 유동성 및 운영 능력이 결합된 사례

△ VLCC 운임 급등 및 주요 선사 성약 동향

중동 걸프 지역 가용 선박 부족으로 인해 VLCC 스팟 운임이 한 달 사이 2배 이상 상승하며 5년 만의 최고치 기록
현대식 스크러버 장착 VLCC의 중동-아시아 노선 수익은 128,100달러/일로 전일 대비 62% 급등
Frontline은 Front Beauly(2023년 건조, 300k-DWT)를 한국 HMM 대상 138,000달러/일에 성약
Front Princess(2018년 건조, 302k-DWT)도 일본 Nippon Global Tanker 대상 127,000달러/일 수준에 성약
Trafigura 관리 선박인 Very Lucky(2019년 건조, 308k-DWT)는 ATC 대상 136,000달러/일 수준에 성약
Suezmax 및 aframax 운임 또한 각각 70,000달러/일, 89,000달러/일 수준의 매우 강한 흐름을 지속 중
OPEC의 3월 증산 중단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수요 회복에 따른 감산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
가용 선박 부족과 화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향후 수익 및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낙관적 전망 우세
중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비공개 거래를 통한 선박 확보가 이어지며 선복량 공급이 점차 타이트해지는 양상

△ 터키 Besiktas Shipping, 100백만달러 규모 PC선 3척 인수

총액 약 100백만달러를 투입한 PC선 3척 인수를 통한 선대 교체 및 확장 가속화
인수 선박은 50k-DWT급 Amasya, Antalya(이상 2016년 건조) 및 Van(2015년 건조)
해당 2척은 중국 Minsheng Financial Leasing으로부터 각 약 33백만달러에 인수. Trafigura와 일일 약 19,000달러/일 수준의 장기 용선 계약이 유지된 상태로 소유권 이전
3번째 선박인 Van은 두바이 소재 선주로부터 약 33백만달러에 별도 인수
이번 인수로 Besiktas Shipping 보유 PC선 36척 중 가장 낮은 선령의 선박 확보
2004년 건조된 노후 선박인 Esentepe와 Ankara(이상 40.3k-DWT급)의 매각 가능성이 대두

△ DHT Holdings, 마지막 2007년식 노후 VLCC 매각 완료

DHT Holdings가 자사 선대 중 가장 오래된 2007년식 VLCC인 301k-DWT DHT Bauhinia를 51.5백만달러에 매각 합의
매각 가격은 VesselsValue의 추정치인 53.5백만달러 대비 다소 할인된 수준
해당 선박은 2026년 6월 또는 7월 중 새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
이번 매각 선박은 부채가 없는 상태이며, 회사는 약 34.2백만달러의 매각 이익을 기록 예정
DHT Holdings는 2025년 말에도 2007년식 VLCC인 DHT China와 DHT Europe 2척을 총 102백만달러에 매각한 바 있음
앞서 회사는 미국 정부의 중국 건조 선박 규제 움직임 속에, 2011년식 중국 건조 VLCC인 DHT Peony와 DHT Lotus 2척을 총 103백만달러에 매각하기도 했음
이번 매각을 통해 DHT Holdings의 선대는 운항 중인 선박 18척과 올해 인도 예정인 신조선 4척을 포함해 총 22척으로 재편
☞ 젊게 선대 재편입니다.

△ DHT Holdings, 실적 발표 및 VLCC 시장 지배력 재편 전망

DHT Holdings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순이익 66.1백만달러, 매출 143.9백만달러 기록
분기당 주당순이익(EPS)은 0.41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순이익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 결정
선대 전체 TCE(용선료 환산 수익)는 60,300달러/일. 스팟 운임은 69,500달러/일, 정기 용선은 49,000달러/일 수준 기록
2026년 1분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팟 선복의 76%가 78,900달러/일에 예약되어 수익성 개선 가속화 전망
노후 선박 매각 후 올해 상반기 중 4척의 최첨단 신조선 인도를 앞두고 있어 시장 강세에 따른 수혜 기대
한편, Sinokor와 MSC의 협력으로 추정되는 대형 세력이 VLCC 시장 점유율의 약 25%를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의 근본적 변화 예고
이러한 시장 통합은 선박 가격 결정력의 변화를 초래하고 선박 확보를 원하는 화주들에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Sinokor는 현재 약 130척의 VLCC 선대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선박 매입에 대해 여전히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 중

△ International Seaways, VLCC 포함 노후 탱커 5척 매각으로 65백만달러 수익 기록

International Seaways가 VLCC 2척과 MR탱커 3척을 포함한 총 5척의 노후 탱커 매각을 확정
이번 매각 거래를 통해 회사는 약 65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
모든 매각 절차는 올해 진행되었으며, 2026년 1분기 내에 마무리될 예정
매각된 VLCC 2척은 평균 선령 15년으로, Seaways Raffles(2010년 건조)와 Seaways Kilimanjaro(2012년 건조)로 추정
해당 VLCC들은 최근 공격적으로 중고 탱커를 매입 중인 한국 선사 Sinokor에 매각된 것으로 보임
Sinokor는 VLCC 분야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Frontline에서 10척, CMB.Tech에서 6척을 매입하는 등 최근 30척 이상의 선박을 사들인 바 있음
매각된 MR탱커 3척의 평균 선령은 18년이며, 현재 중고 시장에서 2007~2009년식 PC선은 약 13.9~17.1백만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02월1주] △ International Seaways의 노후 탱커 매각 및 Sinokor Maritime의 VLCC 인수 현황

▶ 오프쇼어/디펜스

△ 북해 해상 풍력 대규모 확충 및 협력

북해 연안 국가들은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여 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00GW 규모의 국가 간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기로 약속
해상 풍력은 기존 가스관과 달리 공격 지점이 분산되어 있어 단일 지점 공격에 의한 전체 마비(Single-point-of-failure)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2022년 Nord Stream 가스관 폭파 사건이 발생한 Bornholme 인근 해상에도 풍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통합된 에너지 연결망을 심화하기로 합의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및 LNG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안 승인
많은 유럽 지도자들은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정학적 아킬레스건임을 인식하고 '그린 딜' 가속화를 촉구
미국산 LNG가 현재 EU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의 관세 위협과 외교 관계 냉각으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존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
EU 에너지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카타르, 캐나다,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LNG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힘
작년 EU는 15%의 낮은 무역 관세를 적용받는 대가로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기로 약속. 이는 향후 에너지 전환 가속화 시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보복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유럽 정부들은 해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협 감지 및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함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하저 인프라에 대한 스파이 행위와 사보타주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해상 풍력과 연결된 상호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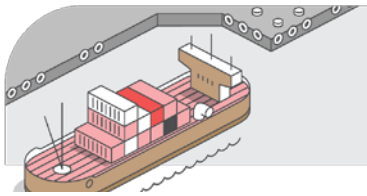
▽ Delfin LNG 파이프라인 폭발 사고 발생 및 조사 착수

미국 루이지애나주 Cameron Parish 소재 Delfin LNG 소유 파이프라인에서 화요일 오전 11시경 폭발 사고 발생
이번 사고로 1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으며, 인근 학교 학생들이 대피소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짐
화재는 파이프라인 내 가스를 연소시킨 후 차단하여 진압되었으며, 루이지애나 주 경찰 주도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가스 유출량 조사 중
사고가 발생한 45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은 해상에서 운영될 3척의 FLNG 선박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Delfin LNG 프로젝트는 총 13.2MTPA LNG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 삼성중공업이 주요 건조사로 참여 예정
운영사인 Delfin Midstream은 당초 이번 달 내에 해당 FLNG 개발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D)을 내릴 계획이었음
☞ 설마, 혹시 FID가 또 밀리는 걸까요?

▶ 기타

▲ Vale, 30억 달러 규모 '트리플 퓨얼' 대형 벌크선 30척 발주 추진

브라질 광산 거물 Vale가 고유황유, 에탄올, 메탄올을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트리플 퓨얼(Triple-fuel) 대형 벌크선 30척(30억달러) 발주를 위한 입찰 착수
발주 규모는 210k-DWT급 뉴캐슬맥스 20척, 325k-DWT급 구아이바맥스 10척으로 추정
신조선가는 뉴캐슬맥스 약 1.05억 달러, 구아이바맥스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일반 연료 추진선 대비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
Vale는 해당 선박들에 대해 25년 이상의 장기 용선 또는 화물운송계약(COA) 체결을 희망
선박 사양에는 스크러버, 로터 세일(Rotor Sail), 공기윤활시스템(ALS), 축발전기 등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각종 친환경 장비가 포함되며, 향후 LNG 및 암모니아 추진으로의 개조 Ready도 요구
건조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조선소가 유력하나, 2029년 말까지 예약된 슬롯 부족과 고부가가치 선종(탱커, 컨테이너선) 선호 경향으로 인해 슬롯 확보가 도전적인 상황
이번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Scope 3 배출량을 15% 감축하려는 Vale의 야심 찬 환경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분석
☞ 중국의 30척 슬롯을 채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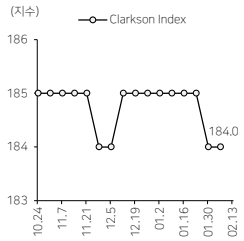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2.08 [8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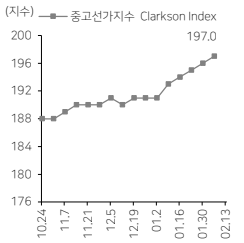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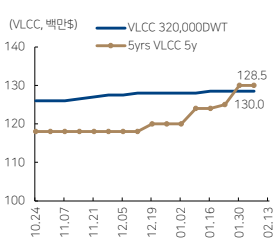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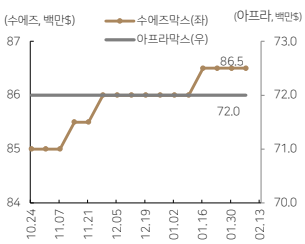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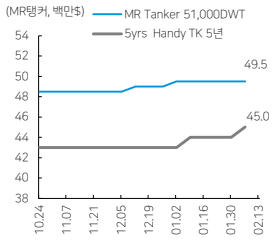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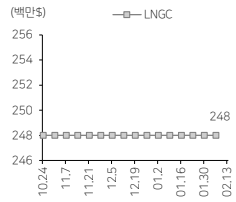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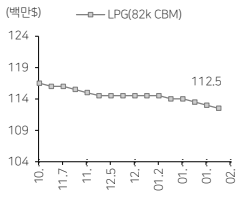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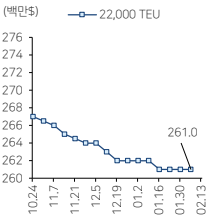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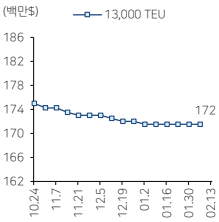
▶ 가스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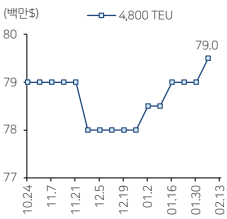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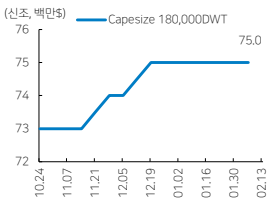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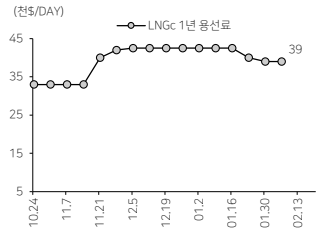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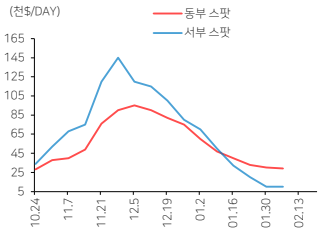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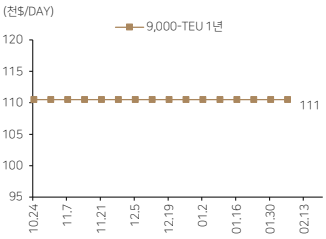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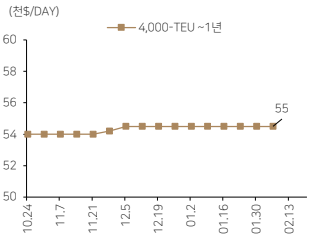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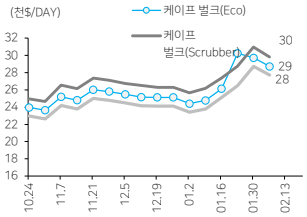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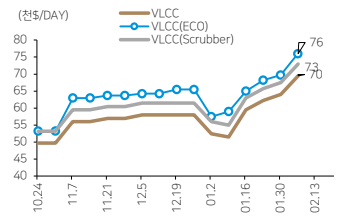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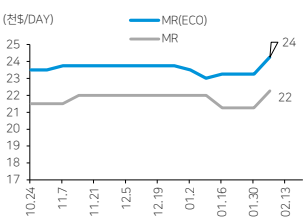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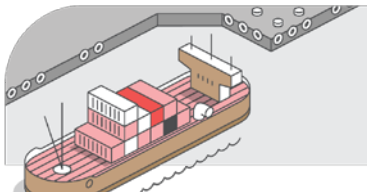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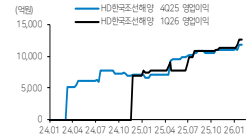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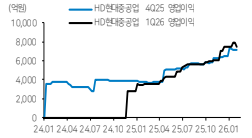
다올 선박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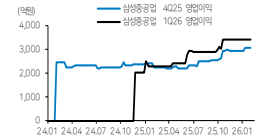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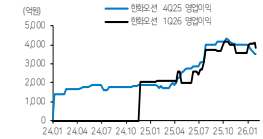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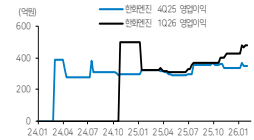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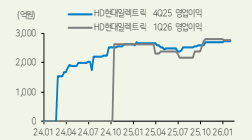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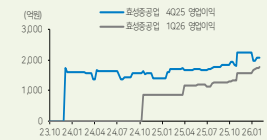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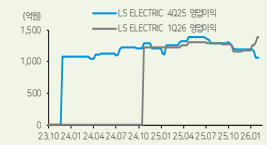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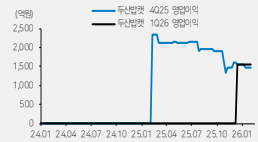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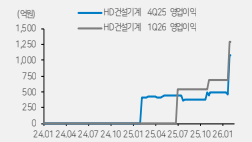
▶LS Electric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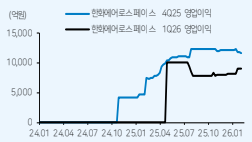


▶HD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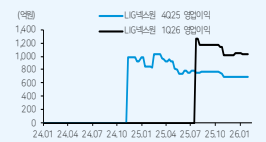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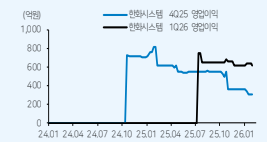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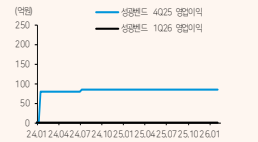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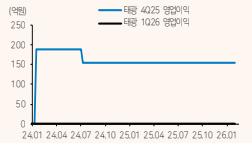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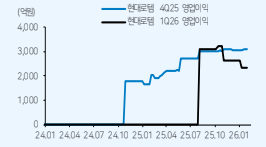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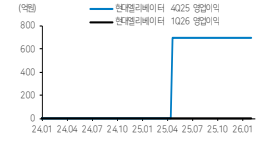
▶태광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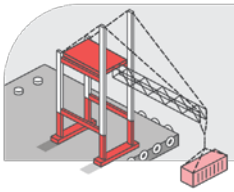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5 E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1.10	26.01.17	26.01.24	26.01.31	26.02.06	Change(%)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VALUATION 2025 PER	종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31,783	31,864	31,921	33,326	33,513	33,760	34,037	34,037	34,037	2%	2%	11.6	395,500
	HD현대중공업	14,605	14,628	14,632	15,625	15,022	14,724	14,627	14,627	14,627	-6%	-3%	36.8	539,000
	삼성중공업	700	724	784	755	746	768	764	764	764	1%	2%	36.0	27,500
	한화오션	3,112	3,181	3,163	3,100	3,089	3,085	3,072	2,954	2,954	-5%	-4%	44.2	130,600
엔진	한화엔진	1,166	1,166	1,133	1,179	1,165	1,170	1,183	1,183	1,183	0%	2%	44.8	53,000
	STX엔진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0%	0%	23.6	30,800
	HD현대마린엔진	1,706	1,706	1,789	2,019	2,064	2,064	2,064	2,064	2,064	2%	0%	38.7	79,900
건설기계	HD건설기계	4,896	4,896	5,834	5,805	2,146	2,146	2,124	2,124	2,124	-63%	-1%	58.7	124,700
	두산밥캣	5,124	5,054	4,548	4,468	4,477	4,385	4,385	4,386	4,455	0%	0%	13.4	59,50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442	447	429	306	296	296	293	293	291	-5%	-2%	305.4	89,000
	HD현대일렉트릭	18,693	18,795	19,408	19,798	19,768	19,822	19,798	19,798	19,798	0%	0%	42.4	840,000
	LS ELECTRIC	10,010	10,011	9,515	9,444	9,364	9,269	8,793	8,793	8,793	-7%	-6%	67.7	595,0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2,670	2,650	2,525	2,229	2,209	2,201	2,148	2,148	2,148	-4%	-3%	73.7	158,3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1,478	32,830	33,689	32,117	30,425	29,885	29,199	29,199	27,968	-13%	-8%	42.2	1,181,000
	LIG넥스원	14,472	14,368	14,330	14,099	14,153	14,136	14,131	14,131	14,131	0%	0%	30.2	427,000
	한화시스템	1,005	990	953	1,206	1,206	1,237	1,282	1,342	1,342	11%	11%	76.7	103,000
	현대로템	7,245	7,380	7,476	7,545	7,454	7,455	7,395	7,395	7,395	-2%	-1%	27.4	202,500
	현대엘리베이터	8,552	8,552	8,552	4,295	4,295	4,295	4,295	4,295	4,295	0%	0%	23.8	102,200
피팅	성광벤드	1,525	1,551	1,442	1,468	1,331	1,331	1,331	1,337	1,337	-9%	0%	22.9	30,600
	태광	1,613	1,592	1,702	1,875	1,875	2,642	2,642	2,638	2,696	44%	44%	9.9	26,800
	하이록코리아	3,644	3,985	3,804	3,804	3,623	3,623	3,623	3,623	3,623	-5%	0%	8.9	32,350

그룹	종목	2025 B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1.10	26.01.17	26.01.24	26.01.31	26.02.06	ROE 2025	2026	VALUATION 2025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181,647	181,475	182,503	183,016	183,407	183,308	183,685	183,685	183,685	19%	25%	2.2
	HD현대중공업	75,374	75,409	75,429	65,166	91,346	85,237	91,406	91,406	91,406	16%	32%	5.9
	삼성중공업	6,270	6,262	6,138	6,090	6,100	6,122	6,112	6,112	6,112	12%	21%	4.5
	한화오션	19,025	19,077	19,069	18,925	18,920	19,070	19,055	18,947	18,947	16%	21%	6.9
엔진	한화엔진	5,311	5,311	5,311	5,827	5,827	5,827	5,827	5,827	5,827	20%	29%	9.1
	STX엔진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15%	63%	3.5
	HD현대마린엔진	11,040	11,040	11,189	11,527	11,552	11,552	11,552	11,552	11,552	18%	33%	6.9
건설기계	HD건설기계	102,916	102,916	103,729	103,613	37,489	37,489	37,460	37,460	37,460	6%	12%	3.3
	두산밥캣	75,292	75,569	73,710	75,828	75,828	75,760	75,760	75,455	76,206	6%	7%	0.8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2,463	12,427	12,277	12,088	12,043	12,094	12,117	12,117	12,116	2%	5%	7.3
	HD현대일렉트릭	54,834	54,945	55,569	55,757	55,725	55,823	55,908	55,908	55,908	35%	41%	15.0
	LS ELECTRIC	68,409	68,409	68,057	68,076	67,999	67,904	67,524	67,524	67,524	13%	21%	8.8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19,668	19,638	19,479	19,315	19,273	19,270	19,221	19,221	19,221	11%	19%	8.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4,645	170,261	172,115	172,064	171,223	170,188	176,663	176,663	179,632	16%	23%	6.6
	LIG넥스원	66,674	66,548	66,706	57,038	56,372	56,358	62,041	62,041	62,041	23%	26%	6.9
	한화시스템	15,469	15,469	16,678	17,475	17,475	17,219	17,219	17,589	17,589	8%	7%	5.9
	현대로템	25,678	26,203	26,512	27,317	27,099	27,101	27,313	27,313	27,313	27%	28%	7.4
	현대엘리베이터	39,414	39,414	39,414	31,305	31,305	31,305	31,305	31,305	31,305	14%	15%	3.3
피팅	성광벤드	21,466	21,466	21,400	21,447	21,447	21,447	21,447	21,225	21,225	6%	8%	1.4
	태광	22,982	23,022	23,128	23,156	23,156	24,197	24,197	24,069	24,658	11%	9%	1.1
	하이록코리아	37,176	40,346	39,135	39,135	37,924	37,924	37,924	37,924	37,924	10%	11%	0.9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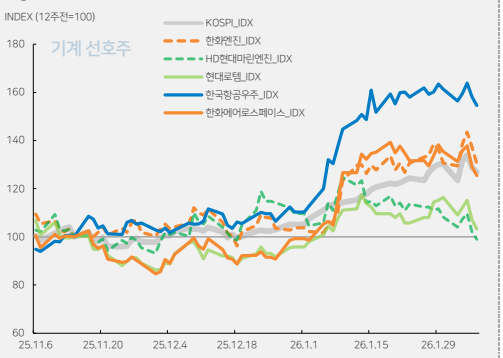
2026.02.08 [808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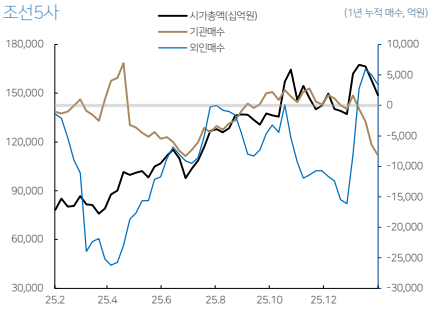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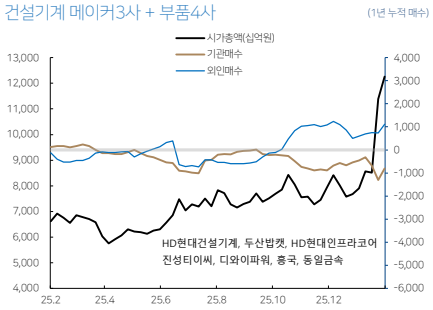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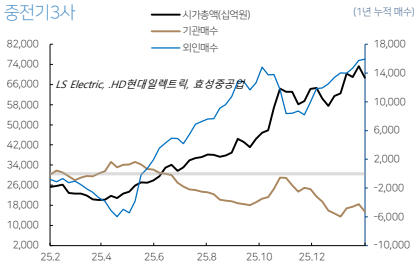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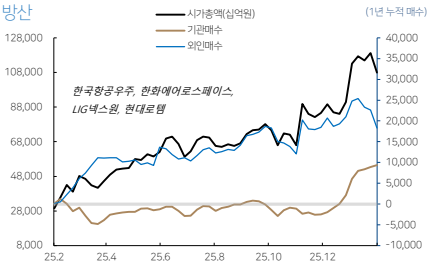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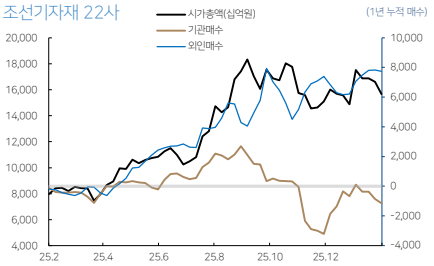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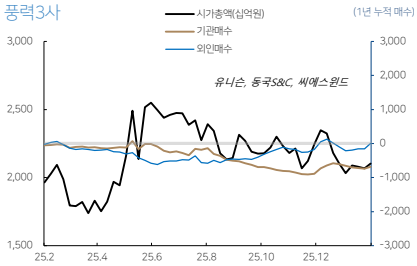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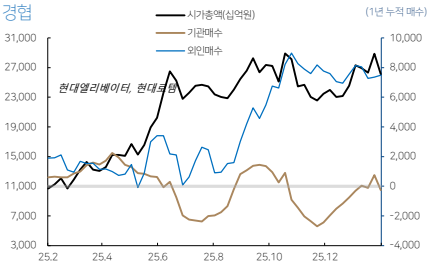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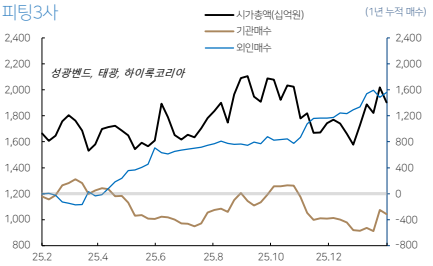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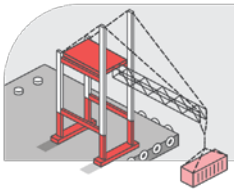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6.02.08 [808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건설기계	4,065	15.1%	15.0%	23.9%		70%	139%
	두산밥캣	3,920	1.5%	0.2%	-1.0%		27%	68%
대형	CATERPILLAR	339,847	10.5%	21.7%	25.8%		100%	193%
	KOMATSU	41,888	19.3%	37.2%	36.9%		56%	122%
	HITACHI CM	8,399	21.4%	25.9%	21.9%		66%	99%
	VOLVO	78,062	6.7%	13.3%	31.9%		15%	89%
중국	SANY	30,306	4.8%	5.8%	3.8%		37%	39%
	XCMG	19,402	6.6%	-2.4%	7.6%		49%	96%
소형	DEERE	158,066	10.4%	22.7%	26.3%		25%	40%
	CNHI	15,406	14.9%	24.8%	17.8%		0%	-24%
	TAKEUCHI	2,225	11.6%	-0.1%	11.9%		32%	149%
	TEREX	7,119	10.1%	8.9%	36.3%		40%	16%
	SUMITOMO HI	4,159	10.3%	21.9%	28.6%		72%	88%
	SANDVIK	51,774	5.7%	17.4%	28.9%		63%	73%
	UNITED RENTALS	56,670	15.0%	2.1%	3.3%		21%	101%
건설기계	디와이파워	104	5.1%	-0.7%	7.7%		14%	17%
부품	진성티이씨	222	3.4%	4.5%	12.6%		48%	26%
	우림기계	146	20.6%	-5.7%	41.7%		185%	138%
	흥국	41	2.0%	1.8%	5.0%		1%	-23%
	동일금속	48	0.4%	-2.2%	-1.5%		-4%	-70%
	KUBOTA	19,280	12.2%	14.0%	32.9%		41%	34%
	가야바	1,526	8.2%	4.9%	21.2%		64%	168%
	Hengli	23,128	10.4%	2.2%	24.5%		81%	83%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10,671	-4.2%	18.6%	54.4%		210%	22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2,417	-7.4%	19.7%	21.6%		192%	1244%
	LIG넥스원	6,521	-10.3%	-11.8%	-16.5%		73%	447%
	한화시스템	13,461	13.4%	78.4%	74.0%		312%	656%
	아스트	175	4.1%	7.8%	18.9%		-12%	-86%
	퍼스텍	153	3.4%	13.3%	-1.0%		41%	36%
	하이즈항공	36	16.4%	30.4%	25.4%		87%	-25%
	오르비텍	89	5.2%	15.1%	8.8%		105%	4%
방산/항공	Boeing	190,863	4.0%	6.5%	20.9%		34%	14%
	Airbus	179,118	-1.1%	-10.5%	-10.4%		15%	71%
방산	LOCKHEED MARTIN	143,473	-1.7%	25.5%	26.8%		40%	30%
	Raytheon Technologies	266,659	-1.1%	7.0%	11.3%		55%	97%
	Northrop grumann	100,638	2.4%	22.9%	21.5%		51%	53%
	GENERAL DYNAMICS	97,359	2.6%	4.2%	4.4%		41%	54%
항공	BOMBARDIER	18,113	5.9%	5.9%	30.2%		212%	306%
	EMBRAER	13,141	-3.4%	1.6%	10.1%		65%	476%
항공 부품	ROLLS ROYCE	141,163	1.5%	-2.4%	5.3%		104%	1043%
	SAFRAN	152,275	2.3%	-4.5%	0.0%		26%	137%
	SPIRIT AERO	#N/A N/A	0.0%	0.0%	7.7%		15%	14%
	TRIUMPH	#N/A N/A	0.0%	0.0%	0.0%		3%	111%
	MHI	103,497	6.6%	15.7%	3.5%		118%	887%
	KHI	15,664	13.8%	26.1%	18.1%		105%	403%
	FHI	15,265	0.5%	-0.3%	1.8%		15%	62%
	IHI	27,205	10.6%	26.5%	22.7%		210%	657%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195	1.5%	3.5%	-5.3%		3%	-43%
	SK오션플랜트	725	-6.6%	-16.6%	-20.0%		38%	-18%
	세진중공업	694	-8.0%	-6.1%	-19.0%		110%	200%
	유니슨	171	1.9%	-12.3%	-16.6%		42%	-31%
	동국S&C	74	-1.1%	-4.5%	-10.1%		-16%	-61%
	태웅	395	-4.6%	7.8%	-6.6%		138%	196%
	VESTAS	26,322	-14.1%	-11.5%	24.8%		56%	-23%
	GOLDWIND	14,002	-2.3%	-3.4%	62.5%		173%	118%
	NORDEX	9,210	-2.1%	-0.1%	29.2%		185%	135%
중전기	LS Electric	12,370	8.1%	26.5%	35.5%		177%	1127%
	효성중공업	14,219	-10.0%	22.1%	-3.0%		343%	3199%
	HD현대일렉트릭	21,050	-3.7%	4.4%	-3.4%		118%	2118%
	ABB	159,088	0.4%	9.4%	12.1%		35%	116%
	Schneider	172,489	4.4%	3.5%	2.8%		7%	70%
	WEG	41,772	0.3%	8.7%	23.2%		-4%	34%
	Crompton Greeves	1,741	10.6%	-7.0%	-13.3%		-33%	-23%
	TBEA	20,070	1.3%	13.9%	40.7%		122%	70%
피팅	성광벤드	563	-4.3%	21.3%	-2.2%		14%	147%
	태광	491	-3.4%	24.9%	-3.0%		30%	83%
	하이록코리아	262	-2.8%	7.2%	-12.5%		19%	42%
발전	두산에너빌리티	39,465	-0.4%	7.5%	1.5%		288%	476%
	비에이치아이	1,604	4.8%	34.6%	49.5%		282%	1137%
	S&TC	595	-0.6%	8.7%	-23.7%		64%	531%
	DONGFANG	12,811	5.2%	2.1%	25.3%		75%	30%
	BHEL	10,246	1.4%	-12.2%	0.1%		31%	254%
	MHI	103,497	6.6%	15.7%	3.5%		118%	887%
	IHI	27,205	10.6%	26.5%	22.7%		210%	657%
	SIEMENS	238,062	-1.4%	-2.1%	2.5%		22%	72%
	General Electric	336,669	4.6%	-0.8%	3.9%		56%	395%
	ALSTOM	15,524	5.2%	8.6%	31.3%		40%	12%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15,188	-11.3%	0.7%	-12.3%		156%	657%
	ALSTOM	15,524	5.2%	8.6%	31.3%		40%	12%
	Bombardier	18,113	5.9%	5.9%	30.2%		212%	306%
	CNR	62,312	5.6%	3.3%	2.9%		-5%	-13%
	CAF	2,334	2.3%	-6.6%	5.1%		61%	102%
	CSR	25,593	0.2%	-3.5%	-1.4%		19%	62%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732	9.1%	17.3%	33.8%		99%	261%
	KONE	37,563	-1.0%	-4.6%	3.7%		21%	24%
	THYSSENKRUPP	8,611	4.0%	14.8%	29.0%		235%	120%
	MITSUBISHI ELEC.	73,723	13.4%	14.1%	26.9%		125%	261%
	HITACHI	156,569	0.1%	2.0%	0.9%		32%	282%
	SHANGHAI ELEC.	17,191	-2.6%	-6.2%	-9.7%		38%	116%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62	3.8%	13.5%	31.5%		52%	28%
기타	와이지원	226	9.8%	90.9%	93.9%		82%	54%
	S&T중공업	1,121	-0.8%	2.4%	-9.5%		85%	392%
	Amada	4,653	12.5%	17.4%	20.8%		42%	91%
	Moriseiki	2,698	9.4%	9.0%	24.0%		23%	44%
	Jtekt	3,872	4.9%	5.9%	23.2%		61%	93%
	Okuma	1,859	12.9%	15.0%	25.5%		23%	65%
	Makino	1,848	2.5%	6.0%	4.1%		-2%	148%
	Gildemeister	4,443	-0.8%	1.1%	2.4%		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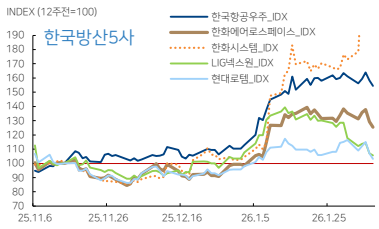
다올 기계 ChartBook

2026.02.08 [8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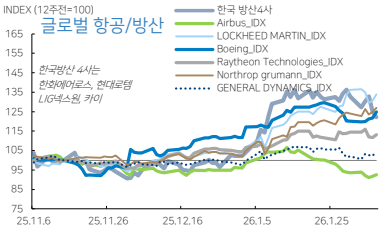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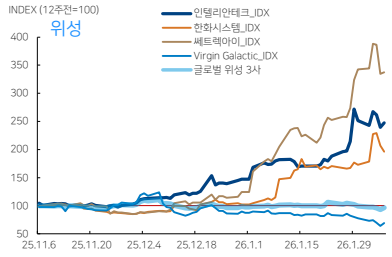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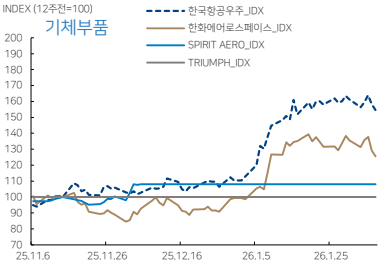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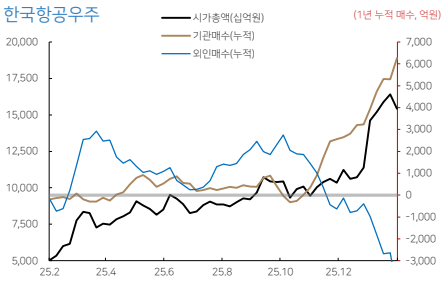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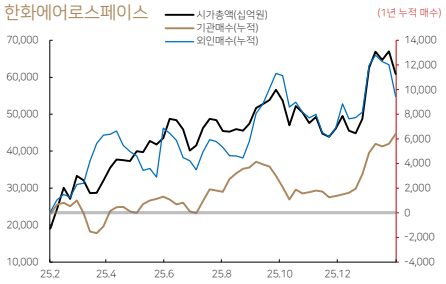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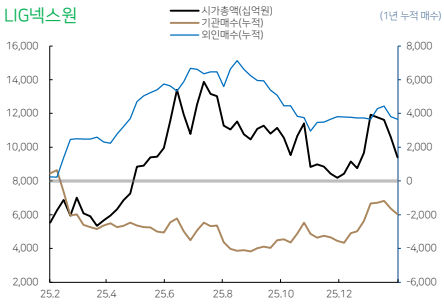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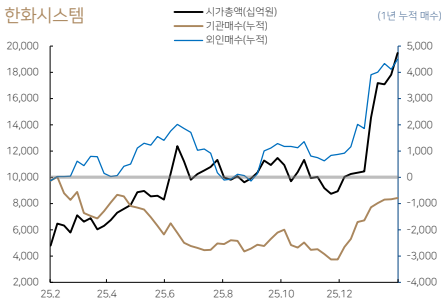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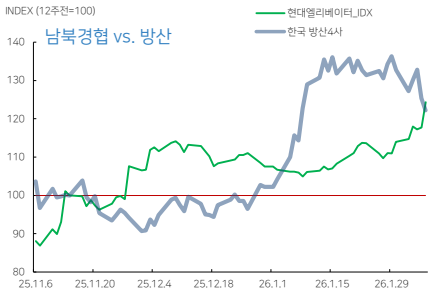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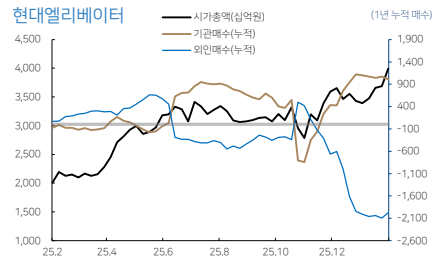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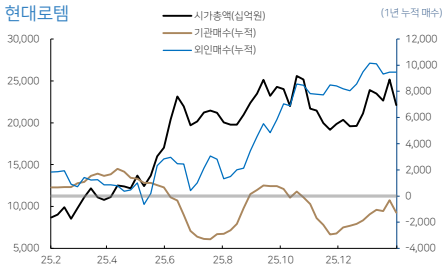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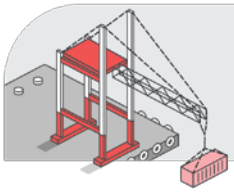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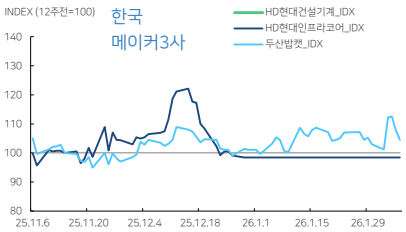
2026.02.08 [808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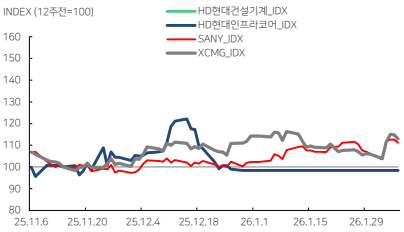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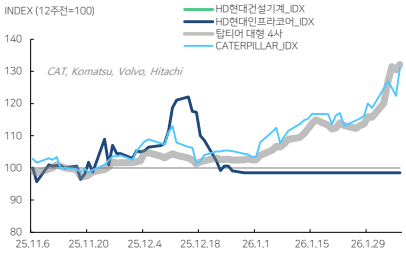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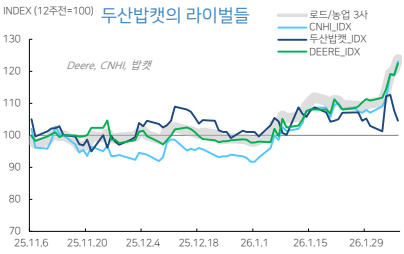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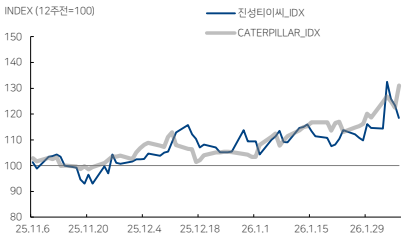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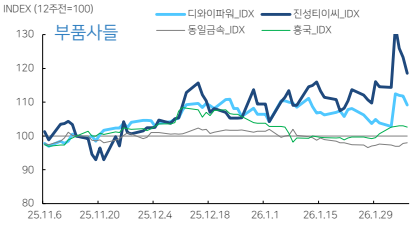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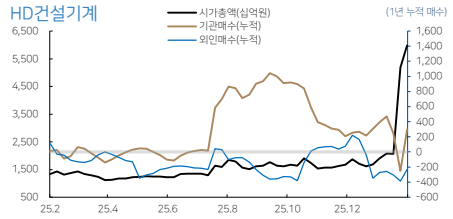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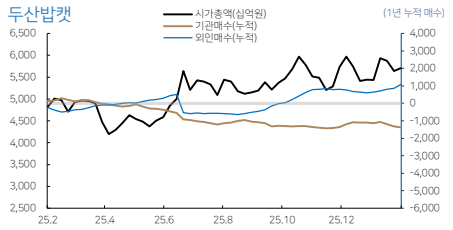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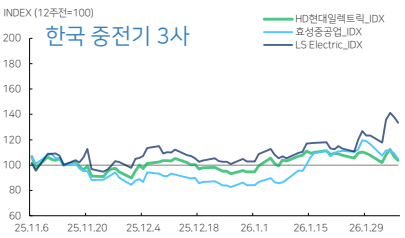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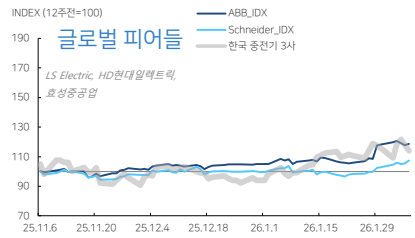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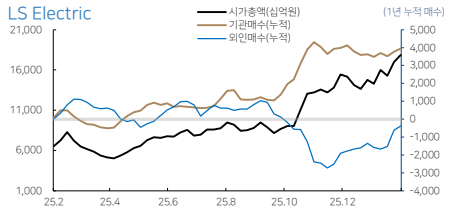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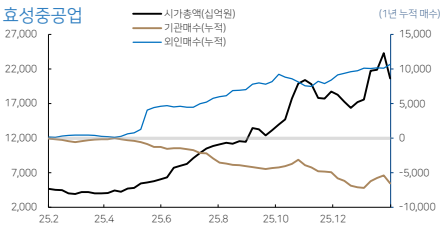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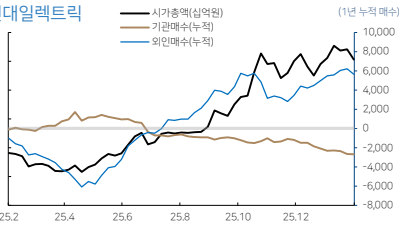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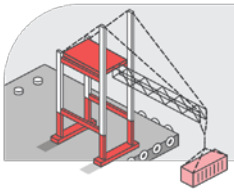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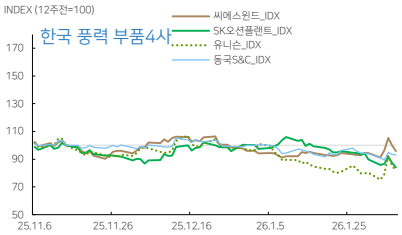
2026.02.08 [808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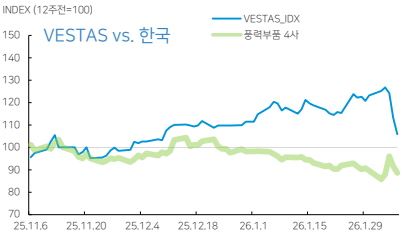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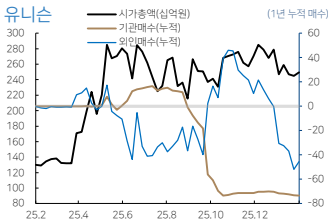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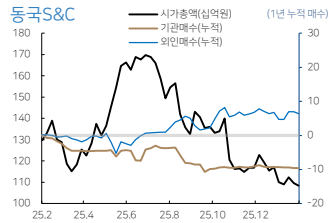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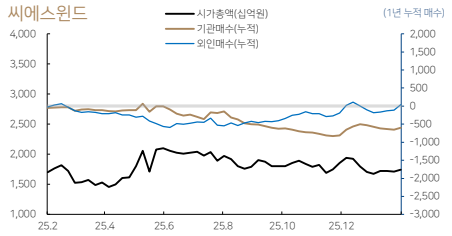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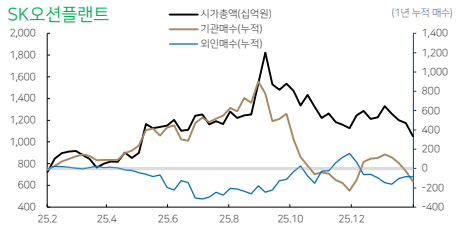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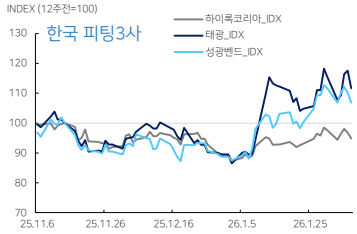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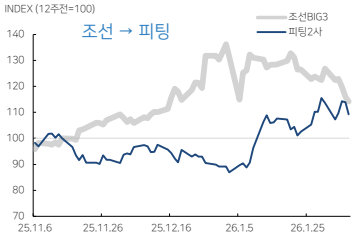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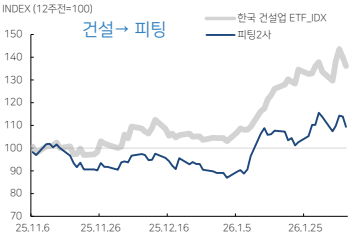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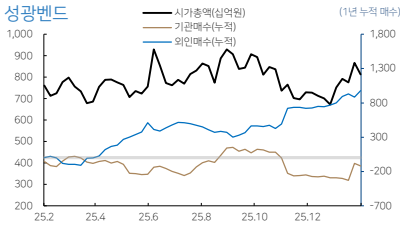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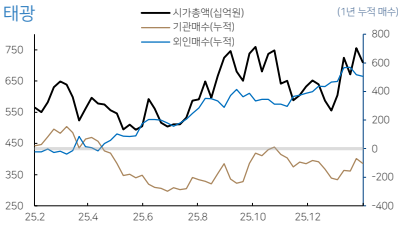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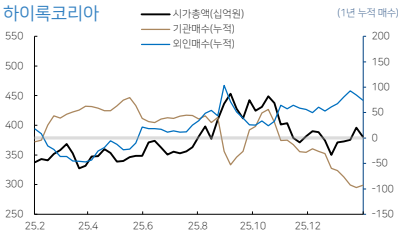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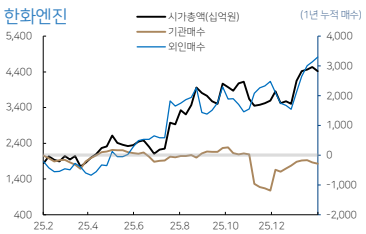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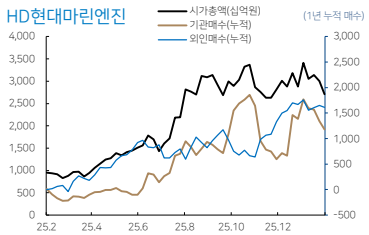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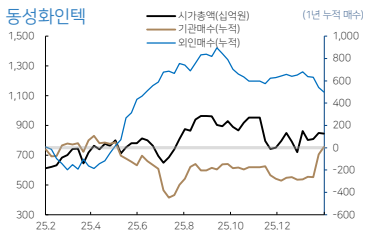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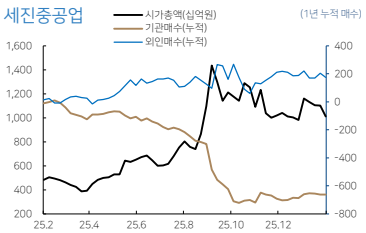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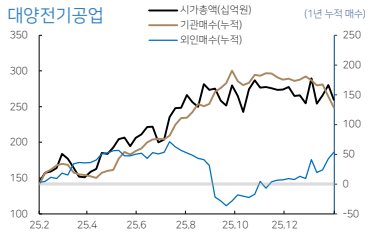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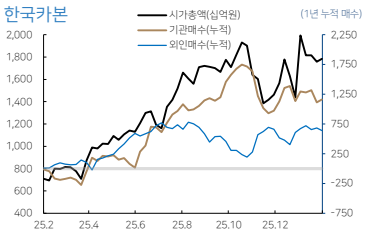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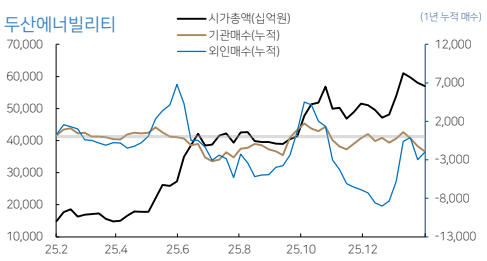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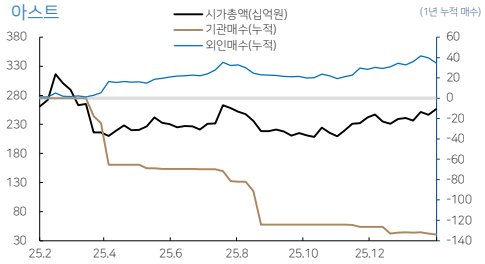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